

##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지평과 『실천불교』의 논리

명 수 현\*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10·27법난과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 3. 불교의 사회적 전회와 민중불교론의 논리 |
| 2. 『실천불교』의 창간 맥락과 ‘시인-수행자’ 지향 | 4. 민중불교의 문학적 실천과 정토시학    |
|                               | 5.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발행된 불교무크 『실천불교』의 매체이념과 전략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80년대 불교계는 청년 불자를 중심으로 불교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탈피하고 현실에 기반한 실천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중불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10·27법난 이후 국가권력의 불교계 탄압이 노골화되면서 불교의 사회적 전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혁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3년 창간된 불교무크 『실천불교』는 논문과 시론, 르포, 대담, 시, 소

\* 부산대학교 강사

설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천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여러 분야의 필진을 폭넓게 활용했다. 이를 통해 불교 교리와 역사, 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반한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강한 역사의식을 담지한 ‘시인-수행자’라는 실천적 지향을 제시했으며, 민중불교운동의 다층적 논리와 정동이 교차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매체전략을 통해 민중불교운동은 단순한 종교운동의 차원을 넘어 민중문화운동의 차원으로까지 확장·고양될 수 있었다. 특히, 박진관을 위시한 불교문인들의 작품은 물론 광주·전남의 목요시와 5월시 동인들과 결합함으로써 불교문학의 민중적 전환을 모색해 나갔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주제어: 『실천불교』, 1980년대, 무크, 무크운동, 민중불교운동,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학, 불교문학, 박진관

## 1. 들어가며: 10·27법난과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1980년 10월 27일 새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 소속 계엄군들이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 여러 사찰에 무장한 채 동시다발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주지와 총무, 재무 등 주요 승려들이 잠들어 있던 방을 급습해 신병을 확보하고, 사찰에 머물던 일반 승려들과 신도들을 마당에 한데 그러모아 신분을 낱낱이 확인하였다. 또한 사찰 운영 및 재산과 관계된 서류 일체를 압수하였다.<sup>1)</sup> 신군부의 총부리와 칼날은 성속(聖俗)의 경계를 가리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던 송월주를 위시한 153명이 계엄사령부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튿날 계엄사령

1) 『불교탄압과 불교자주화운동-10·27법난 8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1988, 8쪽.

부는 “온갖 비리와 부패·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온 사이비 승려 및 상습적 폭력배 등 총 46명을 수사당국이 연행,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사의 동기로 불교계가 “국민의 정신 영역을 계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고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발호하는 비리 지대로 화”하였으며, “불교계 자체의 자율적 정화와 숙정”을 기대했으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갱생의 힘”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sup>2)</sup> 이어서 언론은 이 사건을 “종단 내 분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불교계에 대한 대수술”<sup>3)</sup>이라거나 “‘사회정화의 철퇴’를 맞아 타의적 ‘외과 수술’을 받는 사태”<sup>4)</sup>라고 보도하며 불교계를 고질(痼疾)을 앓는 병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정화와 갱생, 질병과 수술이라는 언어들은 종교계에 대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했다.<sup>5)</sup>

주지하듯이 1954년 이후 거듭 발표된 이승만의 불교 정화와 관련한 유시를 비롯해<sup>6)</sup> 불교 교단의 내부적 갈등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0·27법난(法難)

2) 「계엄사 발표문 전문」, 『경향신문』, 1980.10.28, 7면.

3) 「‘젓밥’ 다툼 폭력 판치는 고질 비리-계엄사의 조계종 정화로 본 사찰 부조리」, 『동아일보』, 1980.10.28, 7면.

4) 「수술대에 오른 불교계 ‘고질’」, 『조선일보』, 1980.10.29, 5면.

5) 이어서 계엄사령부는 10월 30일 오전 전국의 사찰 3,733곳을 비롯해 5,731곳에 이르는 불교 관련 시설에 난입하여 1,776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포고령을 위반한 범법자와 대공 용의자 검거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였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1,499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다. 김경집, 『한국 현대불교사』, 운주사, 2025, 262-263쪽. 11월 14일 계엄사령부는 불교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의 경과를 발표했다. 불교계 비리 혐의자 55명 가운데 승려 10명과 일반인 8명 등 18명을 구속하는 한편, 다른 32명에 대해서는 불교정화중흥회의 자율정화위원회에 위임해 승적 박탈과 종직 사퇴, 불법 취득 재산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5명은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리 승려 등 18명 구속-계엄사 ‘불교 부조리’ 수사 전모 발표」, 『경향신문』, 1980.11.14, 7면. 10·27법난이 종교계를 향한 국가권력의 유례없는 폭력과 탄압 행위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수사 성과는 미미했다.

6) 김광식, 「불교정화운동과 이승만」, 『정토학연구』 42, 한국정토학회, 2024, 255-296쪽 참조.

이 불교계에 던진 파문은 충격적이었다. 국가권력이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폭력적 탄압을 가한 이 사건은 신군부와 일정한 갈등 관계를 맺고 있던 송월주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단에 대한 보복이자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었다. 1980년 4월 새롭게 선임된 조계종 집행부는 신군부가 제시한 정화 방안을 거부한 채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갔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8월에는 정교분리와 종단 자주화를 내세우며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는 데 대한 지지 요청을 거절했다.<sup>7)</sup> 그런 점에서 10·27법난은 신군부 등장 이후 여러 차례 개진된 불교계의 비판적 목소리를 한 순간에 억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불교계 개혁운동의 급진성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사적·사회운동사적 의의가 크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및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해 나간 종교적 주체는 일군의 진보적 기독교인들이었다. 1960년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한 해방신학은 197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안병무와 문익환, 문동환, 서남동 등 진보적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의 지향과 가치를 민중이라는 기표와 접합함으로써 민중신학이라는 독특한 신학적 이론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들은 민중을 “역사와 현실의 희생자·고난자이면서 동시에 해방자·구원자”<sup>8)</sup>로 의미화하였다. 현실의 질곡과 고통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민중의 모습을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의 형상과 겹쳐 읽었던 것이다. 이때 민중은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닌다.<sup>9)</sup> 민중신학의 흥기는 197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 도시산업선교회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위시한 기독교 단체는 교회와 성당을 중심으로 활발한 야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당

7) 김광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524-534쪽.

8) 강인철, 『민중, 저항하는 주체-민중의 개념사, 이론』, 성균관대출판부, 2023, 87쪽.

9) 민중신학의 메시아적 주체론에 관해서는 위의 책, 214-222쪽 참조.

대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 과정의 선봉에 섰다.<sup>10)</sup> 이를 통해 1970년대 기독교는 사회정치적 참여의식을 전방위적으로 고양해 나갈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이 시기 불교계의 활동은 간헐적이고 소극적이었다.<sup>11)</sup> 불교계가 개개인의 구원과 복락이 아니라 민중해방적 관점에서 종교의 역사적 사명을 치열하게 사유하고 폭넓게 공유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청년 불자들이 제기한 민중불교론이 종교운동의 차원으로까지 확대·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맞이한 10·27 법난의 공포와 충격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러한 새로운 개혁운동의 시발점에 놓였던 사건이 바로 1981년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원화운동(여래사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사원을 민중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세간의 승가화, 승가의 세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야학 운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교의 폐쇄성과 반민중성을 극복하고자 했다.<sup>12)</sup> 이후 청년 불자를 중심으로 ‘전국청년승려육화대회’(중앙승가대학, 1981),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범어사, 1983)와 같은 개혁적 움직임이 일었으며 ‘민중불교운동연합’(1985, 이하 민불련)<sup>13)</sup>,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1986) 등의 단체가 여럿 조직되었다.<sup>14)</sup>

10) 1970년대 기독교 야학운동에 관해서는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304-321쪽 참조.

11) 예컨대, 1975년 고은, 고준환, 여익구, 황석영 등이 ‘민중불교회’를 결성하고, 1976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전주 송광사에서 ‘민중불교 실천을 위한 전진대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4차 화랑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은영,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적 정체성 구성-1980~1994년의 불교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9, 51쪽;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운주사, 2022, 394쪽. 하지만, 소수의 소장파 승려나 청년 신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에 불교계 전반으로부터 큰 지지나 호응을 받지 못했다.

12)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679쪽.

13) 1985년 5월 창립한 민불련은 고문으로 경우, 월운, 용태영, 지도위원으로 고은, 김지하, 김승균, 성열, 지선, 황석영, 장기표, 성승표, 백영기, 김만선, 의장으로 여익구, 부의장으로 박진관, 김래동, 집행위원으로 서동석, 기획위원으로 현기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민중법당』 창간호, 민중불교운동연합, 1985, 55쪽.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전개를 가파르게 견인한 여러 불교 단체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와 지향을 독자 대중과 교류하기 위해 기관지, 회지, 신문, 잡지, 팸플릿 등 각종 매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가 무크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참여라는 외적 실천과 교단 개혁이라는 내적 쇄신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체가 『실천불교』다. 1983년 7월 창간한 이 매체는 “부처님의 사상을 대중 속에 실천할 것을 표방한 불교계의 첫 무크지”다.<sup>15)</sup>

잡지(Magazine)와 단행본(Book)의 결합태로서의 무크(Mook)는 부정기간행물을 표방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제도적 검열과 통제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 무크는 문학운동<sup>16)</sup>에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등 여러 부문별 운동과 발 빠르게 결합하며 개별 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앞장섰다.<sup>17)</sup> 특히 마산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를

- 
- 14)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전개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동국대 석림동문화,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437-447쪽 참조
- 15) 『『잡시다 중생 속으로』 창간』, 『경향신문』, 1983.08.18, 11면.
- 16) 『실천문학』(1980)을 위시한 무크지들은 신군부의 언론 강제 통폐합 과정에서 『문화와 지성』이나 『창작과 비평』 같은 기왕의 문학권력 혹은 문단권력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문학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무크운동의 전개 및 실태에 관해서는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화예술』 16(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43-150쪽; 임현영,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 105-124쪽; 김동식, 「잡지의 시대, 매체의 시대, 문학의 시대-1980년대 문학과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대신하여」, 『한국현대문학회 2014년 제2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8, 230-245쪽; 장석주, 「1980년대 소집단 운동에 대하여-1980년대 ‘무크’와 동인지를 중심으로」, 『서정시학』 26(4), 계간 서정시학, 2016.11, 279-287쪽 참조
- 17) 홍지혜, 「1980년 여성 노동자 글쓰기가 놓인 자리-무크지 『우리들』, 『함성』, 『햇살』의 투고글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20, 21-60쪽; 김보경, 「1980년대 문학장의 재편 과정 연구-생활세계와 읽기 확대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24;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쪽;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무크의 탈중심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sup>18)</sup> 이제껏 이 시기 무크지의 정치성과 지역성에 관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런데도 종교 무크, 특히 불교계 무크지는 1980년대 무크운동의 지평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sup>19)</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피고, 『실천불교』의 매체이념과 전략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80년 10·27법난으로 촉발된 불교개혁운동의 전회 과정에서 『실천불교』는 ‘실천’이라는 문제를 전면화하면서 각종 논문과 시론(時論)을 통

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김정은,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문화기획과 글쓰기 실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3; 명수현·강다연·이순옥,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매체의 이념」, 『역사와 융합』 23, 바른역사학술원, 2024, 371-416쪽.

- 18) 『마산문화』, 『지평』, 『전망』, 『토박이』, 『삶의 문학』, 『분단시대』,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일과 놀이』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인문학연구』 45,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31-49쪽;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83-104쪽; 김문주,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마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0, 한국근대문학회, 2014, 323-356쪽; 김문주, 「1980년대 소집단 문학운동과 ‘분단시대」, 『한민족어문학』 108, 한민족어문학회, 2025, 195-235쪽; 임시현, 「1980년대 광주지역 무크지의 실제」,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2016, 361-385쪽; 이동순, 「1980년대 광주 지역문예운동의 특수성」,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145-170쪽;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9, 323-360쪽; 임세진, 「1980년대 지역무크지의 문학문화운동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24; 김경연,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021, 479-530쪽.
- 19) 대표적 종교 무크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역사와 기독교』(민중사)다. 이 매체는 종교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지역 문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분석에 주력하며 학술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민족주의와 기독교’(1981)를 시작으로 ‘지역운동과 지역실태’(1986)까지 통권 12호까지 발간되었다.

해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매체로 기능했다. 동시에 박진관, 문병란을 비롯한 민중시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민중문학과 불교적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적 실천을 수행했다. 따라서 민중불교운동의 담론적 지향과 매체적·문학적 실천 양상을 고찰하는 일은 종교와 사회, 문학이 교차하는 민중불교운동의 다층적 의미와 성과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실천불교』가 담지한 ‘시인-수행자’라는 존재론적 지향과 그에 기반한 문학적 실천은 민중문화운동의 지평 속에서 민중불교운동의 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2. 『실천불교』의 창간 맥락과 ‘시인-수행자’ 지향

민중불교론이 태동한 것은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드높던 1970년대 중반이었다. 일군의 진보적 청년 불자들이 중심으로 불교계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현실 삶과 유리된 불교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기층민중의 삶과 교호할 수 있는 민중적 종교로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기 시작했다. ‘민중불교회’의 조직과 대불련의 ‘민중불교 실천을 위한 전진대회’는 불교 쇄신과 관련한 불교계 안팎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이었다. 뒤이어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전재성이 전서암(全瑞岩)이라는 필명으로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민중불교론」<sup>20)</sup>을 발표했다. 민중불교론의 이론적·역사적 체계화는 1980년대에 본격화하는데, 이는 『한국근대민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sup>21)</sup>와 『불교의 사회사상』<sup>22)</sup>을 통해

20) 전서암, 「민중불교론」, 『대화』 1977년 10월호, 크리스찬아카데미, 108-134, 166쪽.

21) 한중만 엮음, 『한국근대민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한길사, 1980. 이 책은 한길사의 ‘오늘의 사상신서’ 19권으로 출간되었다. “불교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 그리고 민중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

선구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불교의 사회사상』은 불교 서적으로서는 최초로 출판과 동시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검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행본 매체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검열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동성과 투쟁성을 갖춘 매체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 과제였다. 이를 위해 대불련을 비롯한 불교 단체들은 민중불교운동의 이념을 정초하고 조직적 실천 방안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기관지와 회지, 신문, 잡지 등 기동성 높은 매체를 발행하는 데 주력했다. 1980년대 발행된 민중불교운동 계열의 주요 매체들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 관련 주요 매체 발간 현황

연번	매체명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창간일자	매체 성격
1	『진리의 벗』	한상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981.7.25.	회지
2	『청년여래』	최연	여래사불교연구회	1981.10.10.	계간지
3	『실천불교』	박진관 외	시인사/일월서각	1983.7.20.	무크
4	『승가』	석주(昔珠)	중앙승가대학학생회	1984.2.1.	학보
5	『불교와 사회』		불교사회문화연구원	1984.10.13.	기관지
6	『민중법당』	여익구 박진관	민중불교운동연합	1985.7.30.	기관지

다”(4쪽)는 실천적 사명에 기반하여 한용운, 박중빈(朴重彬), 백용성(白龍城), 박한영(朴漢永) 등 식민지시대 민중불교의 근간을 마련한 선각자들의 글을 간추려 실고, 이를 분석한 논문들을 덧붙였다. 아울러, 불교의 재건과 민중화를 주창하는 글들을 실어 불교를 민중현실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자 했다.

- 22) 여익구 엮음, 『불교의 사회사상』, 민족사, 1981. 이 책은 불교출판사였던 민족사에서 첫 번째로 발행한 책으로, 출판사 대표 윤창화와 여익구, 홍사성, 성문, 원혜 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민족사에 모여 진행한 모임에 기반하여 여익구와 윤창화가 구상한 것이었다. 윤창화, 「불서 출판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불교평론』 25(1), 2023, 202-203쪽.

7	『민중불교』		민중불교운동연합	1987.2.25.	신문
8	『숲과 나무』	유봉	도서출판 일주문	1988.4.1.	시사지
9	『대승불교』	송산(松山)	대승불교승가회	1988.5.26.	신문
10	『정토구현』	청화(靑和)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1988.10.25.	신문
11	『민족불교』	목우(木偶)	동광출판사	1989.1.30.	무크

민중불교운동의 매체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앞장선 것은 청년 불자와 그 조직들이었다. 1981년 7월 창간한 대불련 회지 『진리의 빛』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젊은 지성불자(知性佛子)로서의 사명감”<sup>23)</sup>을 강조하며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 불자들이 견지해야 할 사회 참여의식과 태도,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분포된 대불련 조직을 결속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계간불교논총 『청년여래』는 여래사운동을 매개·확산하기 위해 여래사불교연구회에서 발행한 매체다. 젊은 불자들을 위한 정기 간행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젊은 불자들의 자각과 신앙심을 고취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회와 민중을 위한 실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젊은 불자들의 대변지’를 지향하였다.<sup>24)</sup> 이 매체는 여래사운동의 이론적·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민중불교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23) 정용학, 「(창간사) 사명과 단결」, 『진리의 빛』,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981.7, 2쪽. 창간호의 발행인은 한상범, 편집인 정용학, 주간 석도수이다. 대불련 회장 정용학의 「창간사」를 필두로 권두에세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젊음에의 기대」(한상범), 「대불련 논단」의 「내면적 자각과 구체적 실천」(여익구), 「야학의 불교운동적 고찰」(석범우), 「자연과학과 불교」(민병도), 주간 석도수와 이동철이 참여한 특별 대담 「종교와 지식인의 역할」 등을 실었다. 이외에도 시, 수필 등의 문학작품과 대불련 소식을 담았다.

24) 최연, 「통제된 상황과 극복의 방법」, 『청년여래』, 여래사불교연구회, 1981.10, 8쪽. 창간호 발행 및 편집은 여래사 운영위원인 최연이 맡았으며, ‘원시불교의 재조명’, ‘한국불교운동사’, ‘근로자 포교의 이론과 실제’ 등의 코너를 마련하였다.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뒤이어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에서 발행한 학보 『승가』, 민불련에서 발간한 기관지 『민중법당』<sup>25)</sup>과 『민중불교』, 불교시사지 『숲과 나무』 등이 민중불교운동을 견인하는 건설한 매체 기반으로 작동했다.<sup>26)</sup>

그런데 이들 매체의 대다수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기관지 혹은 회지라는 특징을 갖는다. 기관지나 회지는 민중불교운동의 여러 국면마다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각 단체의 조직 및 운동 목적, 활동 양상을 가장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기관지라는 점에서 일정한 폐쇄성과 집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리의 벗』, 『청년여래』의 경우에는 민중불교운동의 사회·정치·역사적 성격을 학술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시야에서 분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실천불교』는 불교계 내 특정 세력의 대변자가 아닌 민중불교운동 전반을 아우르는 매체라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일정한 차별성

- 25) 『민중법당』은 민중불교운동연합에서 1985년 7월부터 발행한 기관지로, 창간호 편집 겸 발행인은 여익구, 박진관이 맡았다. 「민중불교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여익구)라는 창간사를 필두로, 기획논문 「85년도 상반기 위기와 상황분석」, 「『민불련』의 운동 방향과 과제」, 진관, 목우, 현기, 진상, 서동석이 참여한 좌담회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청년승려들의 입장과 사명」, 특집논문 「85년도 상반기 노동운동의 평가」, 「농업 문제란 무엇인가」, 르뽀 「(주)성도섬유의 부당해고·강제사표를 고발한다」 등을 수록하여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불교의 사회참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섰다.
- 26) 이들 매체 외에도 불교의 활발한 포교 및 대중화를 위해 해인사에서 펴낸 『해인』(1982.3)을 비롯한 여러 사찰의 사보(寺報)나 『불교사상』, 『불교문학』 등의 매체를 창간하여 불교계 내부의 다층적인 목소리와 지향점들을 대변하고자 했다. 『불교사상』의 경우 한국불교의 변화가 혁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계율과 전통의 지반 위에서 점진적인 새로움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당대 민중불교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창간사」, 『불교사상』 창간호, 불교사상사, 1983, 39쪽. 1988년에는 “이 땅의 문학 지평을 새롭게 넓혀 가는 순수 계간 문학지”를 표방한 『불교문학』이 창간되어 불교문학의 중요한 창작 기반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창간호 편집인 겸 주간은 이항봉이 맡았으며, 이기영, 고은, 최일남, 조오현, 김정휴가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을 갖는다. 특집 기사와 논문, 시론, 대담, 강연, 르포, 서평 등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통해 불교뿐만 아니라 당대 민중 현실을 폭넓고 광범하게 다룬 종합지다. 특히 다른 매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문학작품을 수록함으로써 민중문학과 불교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문학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했다. 『실천불교』는 민중불교운동의 담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정동적 힘을 조직하는 공론장으로 작동했으며, 이를 통해 민중불교운동이 종교적 차원을 넘어 민중문화운동의 차원으로 확산·고양될 수 있었다.

『실천불교』의 서지 사항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표 2> 『실천불교』 서지 사항

제호	편저자	편집위원	발행인	발행처	발행일자	비고
『실천불교』 1 갑시다 중생 속으로	박진관 외	—	조태일	시인사	1983.7.20.	
『실천불교』 2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원광 외/ 박진관 (주간)	—	조봉신	시인사	1984.12.20.	
『실천불교』 3 불교여! 민중의 뜻으로	윤호진 외/ 박진관 (책임편집)	김승균 윤호진 오현 송수권 이청화 목우	최옥자	일월서각	1985.10.15.	
『실천불교』 4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목우 (책임편집)	목우 진관 윤구병	최옥자	일월서각	1987.10.20.	
『민족불교』 창간호	목우	백기완 신경림 서중석 여익구 목우	최동전	동광출판사	1989.1.30.	제호 변경

『실천불교』는 1983년 7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통권 4호가 발행되었으며, 1989년 1월 『실천불교』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민족불교』가 창간되었다. ‘갑시다 중생 속으로’라는 표제를 단 『실천불교』 창간호는 조태일이 주재하던 시인사에서 발행되었다. 표지에는 “불교를 새롭게 중생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역사를 새롭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불교에 대한 지향을 표명했다. 창간호 발행인으로는 조태일이 이름을 올렸으며,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창간사 ‘갑시다, 중생 속으로’는 시인 고은이, 편집후기에 해당하는 「책 끝에」는 승려이자 시인 박진관<sup>27)</sup>이 썼다는 점에서 이들이 매체 창간의 실질적 주체라 볼 수 있다. 2집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역시 시인사에서 발행되었는데, 박진관이 주간으로 이름을 올렸다. 3집 ‘불교여! 민중의 뜻으로’는

27) 박진관(본명 박용모)은 1948년 전북 김제에서 났다. 1963년 출가해 승려가 된 후 1976년 『시문학』에 추천되어 시작 활동을 본격화했다. 1977년 첫 시집 『물결 갈라지는 곳에서』(시문학사)를 시작으로 『무연의 광장에 서서』(불교신문사, 1978), 『한 자락 남은 당신의 마음』(한겨레, 1979), 『목마른 마당』(나래, 1982) 등의 시집을 꾸준히 발표했다. 이 시기 이청화, 황청원, 김정휴, 석성일 등과 승려시(僧侶詩) 동인으로도 활동했다. 「시의 대중화’ 운동 활발」, 『동아일보』, 1981.07.24, 7면. 1982년에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 희곡 「선객(禪客)」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노승려와 행자의 쉽 없는 노동을 통한 자기완성 과정을 그린 이 작품에는 “선의 참뜻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야 하며 신성한 노동에 정진하는 가운데서 자기 육체를 구하는 원력(願力)”을 세우게 된다는 시인의 인식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다. 「연극계에 부는 새바람 “뭔가 색다른 것 보여주겠다”」, 『매일경제』, 1982.02.25, 9면.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한가운데서 민중의 삶을 그린 작품들을 써내기 시작하며 『까마귀 우는 산』(청사, 1986), 『광주에 오신 부처님』(일월서각, 1987) 등의 시집을 내놓았다. 1985년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결합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장 문익환)의 감사와 인권위원장(1986)을 역임했으며,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으로서 6월항쟁의 불을 지핀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민헌운동’ 간부 13명 구속-6·10대회 주도 혐의 양순직 민주당 부총재 박형규 목사 등」, 『경향신문』, 1987.06.13, 1면. 이러한 행보를 통해 그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불교계의 가장 전위적 투쟁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월서각에서 발행했으며, 박진관이 책임편집을 맡았다. 3집부터는 편집위원 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사상계』 편집인을 맡았던 민주화운동가 김승균을 비롯해 윤호진(승가대 교수), 오현(조오현, 승려·시인), 송수권(시인), 이칭화(승려·시인), 목우(승려)<sup>28)</sup>가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987년 10월 일월서각에서 발행된 4집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을 위하여’는 목우가 책임편집을 맡았으며, 진관과 윤구병(충북대 교수)이 편집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통권 4호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매체 편집을 주도했던 이는 박진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호에 실린 창간사와 편집후기를 통해 매체이념과 지향을 살펴보자.

부처를 심산유곡의 방에서 이룬다고? 그런 망상으로 몇천 년의 꿈을 허송한 잘못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몸과 뜻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란 주린 범에게 제 몸을 밥으로 바친 값으로 받은 이슬방울입니다. 부처란 아픈 중생, 놀린 중생을 풀어주려고 몸 바친 끝에 겨우 얻은 어느 첫여름 아침의 풀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밥으로 바친 역사를 세세생생 쌓아야 겨우 이룰까 말까 한 것이 부처입니다.

부처 되려는 사람들! 다른 공부를 버리고 먼저 몸 바치는 공부에 뛰어들도록 합시다. 억만 중생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멍치고 멍쳐서, 못 중생들의 즐거움이 멎히고 멎혀서 한 일꾼을 만들 것입니다. 그 일꾼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처가 일 열심히 하는 걸 우리는 대자대비라 합니다. 바로 요놈의 대자대비가 불법의 구경입니다.<sup>29)</sup>

28) 본명은 박두철로 1952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났으며, 1977년 출가했다. 광화문에서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1973년 무렵 민주화운동에 나서기 시작하며 민청학련의 유인물 등사 장소를 제공했다. 지명수배된 이철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77년 석방된 이후 사천 다솔사에서 ‘목우’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민중불교운동의 선봉에서 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메디치, 2018, 645쪽.

29) 고은, 「갑시다, 중생 속으로」, 『실천불교』 1, 시인사, 1983, 6쪽. 이하 『실천불교』

10년에 이르는 출가 생활을 경험했던 고은<sup>30)</sup>은 창간사에서 부처를 이루는 일, 곧 깨달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새롭게 사유한다. 부처를 이루는 일이 “심산유곡의 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언급은 현실 세계나 생활과는 유리된 채 수천 년간 존속해 왔던 산중불교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는 “주린 범에게 제 몸을 밥으로” 내어주고서, “아픈 중생, 놀린 중생을 풀어주려고 몸 바친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라 말한다. 깨달음이란 현실을 등진 채 홀로 면벽하는 와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몸을 바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이는 중생구제라는 대승적 원리와 다르지 않다. 다른 자리에서 고은은 “붓다는 중생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만 그 관계의 불가피성으로서 붓다”라고 말하며,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구제하기 위한 보신, 중생의 질곡을 해방시키기 위한 보신”을 강조했다.<sup>31)</sup> 이러한 보신, 곧 대자대비(大慈大悲)가 부처의 ‘일’이며, “몸 바치는 공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그 구경의 대자대비는 고사하고 지금 중생은 도탄”에 빠져 있음을 개탄한다. 그러면서 중생이 처한 “말세 도탄! 자아, 도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겪어내야 한다고 말한다.<sup>32)</sup>

부처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민중들과 몸 부대껴야 한다는 고은의 주장에서 불교적 실천 혹은 실천으로서의 불교가

---

를 인용할 때는 권호와 쪽수만을 밝힌다.

30) 고은의 법명은 일초(一超)다. 중학교에서 국어와 미술을 가르치던 그는 1952년 방랑승 혜초(慧超)를 따라 20세의 나이로 출가하였으며, 이후에는 통영 미륵도의 효봉(曉峰) 선사를 만나 상좌 생활을 했다. 그 사이 『불교신문』의 초대 주필을 맡아 다양한 글을 발표하였으며, 1962년 환속하였다. 고은의 출가 체험과 출가 시기 그가 따른 혜초와 효봉에 대해서는 김승희, 「파란과 신명의 축제」, 고은·최원식·김승희, 『고은 문학앨범』, 웅진출판주식회사, 1993, 78-90쪽, 최원식·김태현·권성우, 「고은 시인과의 대화」, 신경림·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3, 16-19쪽 참조.

31) 고은, 「불교의 역사」, 『실천불교』 3, 75쪽.

32) 고은, 앞의 글, 1983, 7쪽.

지닌 의미를 간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비슷한 시기 그는 「실천론 서설」(1983)에서 실천을 “사회가 모순에 처했을 때 그 모순의 비인간성을 파괴하는 인간행위의 부단한 진화”<sup>33)</sup>라 정의했는데, 불교 역시 사회적 모순의 비인간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의 도구로서 호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실천의 핵심적 조건으로 “이제까지의 서구적 실천철학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독립”<sup>34)</sup>을 내세운다. 대항적 실천의 방법이 민족적·민중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적 정통성과 역사성을 담지한 불교는 실천론의 이념적 근거이자 실행의 동력으로서 “사회구원”<sup>35)</sup>을 이루는 데 가장 부합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앙승가대학에서 ‘실천불교’라는 교과목을 개설했을 만큼,<sup>36)</sup> 불교를 실천적 형식과 언어로 전유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했다. 이러한 기풍 속에서 실천불교 담론을 주도적으로 개진한 인물이 바로 박진관이었다. 그에게 불교는 실천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수행성의 차원이다.

불교를 실천하자. 불교도들의 소유물이 되지 말고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불교의 힘으로 가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국토를 이룩하자. 여기에 부처님의 정법이 있고 참다운 정신이 있고 역사가 있고 민중이 있으리라. 그렇게 될 때에 감옥이 없고 고통받는 민중이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불국정토를 이룩하자. 이것이야말로 민중을 위하는 민중불교가 되고 불교를 실천하는 실천불교가 되는 것이니라. (중략)

시인이면서 수행자는 그 정신이 달라야 한다. 시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종교인이 물질에 얽매어 있다거나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다. 시인이여 말하라.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33) 고은, 「실천론 서설」, 『문학과 민족』, 한길사, 1986, 357쪽.

34) 위의 글, 360쪽.

35) 위의 글, 361쪽.

36) 월운, 「실천불교」, 『승가』 창간호, 중앙승가대학학생회, 1984.2, 79쪽.

말하라. 시인은 죽어서 꽃이다. 오늘날에 한국에 시인이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한국의 시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 혀가 굳어졌다. (중략)

우리 실천불교에서는 눈뜬 시인을 만나며 올바른 정신의 지도와 민중과 함께하는 수행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민중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살아있는 불교가 되고 움직이는 지식인이 될 것이다. (중략)

불교 안에서 승려 시인들의 움직임도 또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민중을 위하는 불교로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다. 그래서 실천불교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고 이 잡지를 통해서 불교를 실천하는 데 민중과의 거리가 좁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승려 시인들이 되어 이 땅에 새로운 문학의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sup>37)</sup>

박진관에 따르면 불교적 실천의 목표는 “가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국토”, “감옥이 없고 고통받는 민중이 살지 않”는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시인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인이면서 수행자”라는 존재론적 정위는 일차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시인을 수행자와 동일시하는 시인에 대한 인식을 ‘시인-수행자’라는 말로 일컬을 수 있다면, ‘시인-수행자’라는 명칭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는 만해 한용운이다. 한용운은 불교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견지에서도 ‘수행자로서의 시인’ 혹은 ‘시인으로서의 수행자’라는 강력한 표상성을 지닌 존재다. 박진관은 『실천불교』를 만해 한용운 이후 처음 있는 불교의 대중잡지라 규정하면서, “한용운 스님의 민중적 의지”를 받들 것을 천명하고 있다.<sup>38)</sup> 즉, 『실천불교』를 식민지시대 불교의 민중화를 강력하게 외쳤던 만해의 『유심(唯心)』(1918), 『불교』<sup>39)</sup>를 잇는 잡지로 자리매김

37) 박진관, 「책 끝에」, 『실천불교』 1, 349-352쪽.

38) 위의 글, 351쪽.

39) 『불교』는 1924년 7월 창간되었으며, 발행인은 권상로였다. 한용운은 1931년 불교사의 사장을 맡아 1933년 7월까지 매체 발행을 주도했다.

함으로써 『실천불교』의 이념적 매체 전통과 그로부터 비롯한 불교적 민중문학이라는 문학적 전통성을 선명하게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인-수행자’라는 존재론적 자각으로부터 발원한 반성적 고찰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 전반으로 확대되는데, 박진관의 날 선 시선은 입을 다문 시인과 재물에 얽매인 종교인들로 향한다. 시인이 말해야 할 것은 현실의 부조리다. 그러나 현실의 시인들은 말을 잃었으며, 혀가 굳어버렸다. 박진관은 『실천불교』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침묵하고 도피하는 시인들과는 구분되는 “눈뜬 시인”의 면모를 구체화함으로써 동시대의 시인들이 민중과 함께하는 수행자, 실천하는 순교자, 나아가 움직이는 지식인의 역할과 사명을 자각하는 ‘시인-수행자’로 거듭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불교의 사회적 전회와 민중불교론의 논리

4호까지 발간하는 동안 『실천불교』는 특집 코너와 논문, 시론, 문학을 기본 틀로 삼은 편집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문학작품을 제외한 수록 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실천불교』 1~4집 수록 글(특집 기사, 논문, 시론 등) 목록

실천불교 1	실천불교 2	실천불교 3	실천불교 4
창간사_갑시다, 중생 속으로(고은)	권두언_전통과 발전(윤호진)	권두언_색시공과 오늘의 밤(김우창)	권두언_책을 내면서
<b>특집_한국불교의 새 방향</b> _한국 사원 교육제도(남도영) _한국의 미륵신앙(김상현) _불교의 유아교육	<b>특집_불교를 새롭게</b> _사찰관리론(이혜성) _오시팔교에 대하여(전명성) _불교와 사회복지	<b>특집 1-한국 불교 무엇이 문제인가</b> _한국 불교에서의 비구니의 역할(정자민) _비구니의 교육적인 면(박지형)	<b>특집-민중·민중운동과 불교</b> _민중·민중운동과 불교(백낙청) _민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목우) _민중불교 구현을

<p>론(한상인) _ 불타의 역사적 인식과 고(임동주) _ 중생구제와 보살사상(오정근) _ 한국 불교의 민중적 전개(김종찬)</p>	<p>(임송산) _ 불교에서 본 사회구조(오국주) _ 선의 정신의학(김중해) _ 한국사원교원제도(남도영)</p>	<p>_ 비구니의 포교활동(종실) _ 청소년 포교문제(정대) _ 어린이 포교의 나아갈 길(진철) _ 노인을 위한 교화문제(도각) _ 재소자 전문교화방안 마련을(명우)</p>	<p>위한 몇 가지 철학적 문제(여익구) _ 한국불교의 민족화 문제 단상(박태순) _ 불교운동의 과제와 방향(최석호) _ 불교의 정치사상(조성렬)</p>
<p><b>논문</b> _ 범패의 미적 고찰(하규백) _ 불타체험의 근본교리(목정배) _ 한용운의 교육철학(김보삼) _ 도덕부정론의 일양상(권오민)</p>	<p><b>논문</b> _ 장승고(이강열)</p> <p><b>시론</b> _ 승려교육의 필요성(이진우) _ 역사와 함께(원행) _ 이 땅에 정토를(김성룡) _ 한국 불교 이대로 좋은가(원중) _ 한국불교의 실천적 방향(경연수) _ 불교여 잡에서 깨어나라(이국문) _ 민중의 대변자(오정자) _ 현대인의 불교관(이연수) _ 호법 불교의 역할(조미애) _ 불교인의 실천기준(이재형)</p>	<p><b>특집 2-근대 불교운동과 승려</b> _ 용성선사와 새불교운동(광덕) _ 만해와 새불교운동(김영태) _ 박한영과 현대불교운동론(목정배)</p>	<p><b>불교논문</b> _ 이런 데 그런 데 이야기(백기완) _ 한국불교의 정치성을 진단한다(김종찬)</p>
<p><b>시론</b> _ 불교인의 시대적 사명과 신행(최석호) _ 중생들에게 이의를(임영담) _ 민중의 감수성을 회복하자(이재현) _ 민중을 위한 불교(강성광) _ 불교와 현대사회(박완배) _ 올바른 보시와 자비행(이연근)</p>	<p><b>불교논문</b> _ 불교의 역사의식(고은) _ 불교의 노동관(윤호진) _ 원효성사의 정도사상(목우) _ 종교와 사회변동(김종천)</p> <p><b>시론</b> _ 깨달음의 세계에 귀의하자(화선) _ 자신있게 살아가는 불자가 됩시다(이종립) _ 종문이 위태롭습니다(도법) _ 동체대비심으로(영명) _ 청소년에게 불심</p>	<p><b>불교논문</b> _ 불교의 역사의식(고은) _ 불교의 노동관(윤호진) _ 원효성사의 정도사상(목우) _ 종교와 사회변동(김종천)</p>	<p><b>시론</b> _ 자주화운동으로서의 가능성(김병근) _ 국민은 아직도 공을 기다리고 있다(윤구병) _ 불교와 인간의 해방(지선) _ 사회변동과 승려의 역할(향적) _ 민주화를 위한 포교도량(진상) _ 사회 속에 보살이 되어(성열)</p>
<p><b>특별기고</b> _ 한국종교와 민족</p>	<p><b>특별기고</b> _ 한국종교와 민족</p>	<p><b>시론</b> _ 깨달음의 세계에 귀의하자(화선) _ 자신있게 살아가는 불자가 됩시다(이종립) _ 종문이 위태롭습니다(도법) _ 동체대비심으로(영명) _ 청소년에게 불심</p>	<p><b>판화</b> <b>강연</b> 미국의 제3세계 전략과 한반도 주변정세(이영희) <b>논단</b> 6월 민주혁명과 민주화 전망(서중석)</p>

<p>통일(고려대 _심포지움) _외국인이 본 한국 _인(B.G. Remmer)</p> <p><b>서평</b> 불교복지에 _대하여(조명기)</p>	<p>통일(김홍락) _불교와 실천 _(강영철) _보시와 실천 _(정한태) _어느 재소자에게서 _온 편지(정치몽) _역사의 주체로서 _의 불교운동 _(홍무흡) _현대사회 수용을 _위한 불교의 입장 _(박명섭) _체험적 불교귀의 _(양홍식)</p> <p><b>현장르뵐</b> 불교를 _실천하고 있는 고 _광표 씨를 찾아 _(이재원)</p> <p><b>특별기고</b> 종교학을 _공부하면서(최준식)</p>	<p><b>특별대답</b> 타 종교 _의 입장에서 바라 _본 불교(정호경· _이해찬)</p> <p><b>특별기고</b> 제3자가 _본 불교(허병섭)</p> <p><b>서평</b> 삶을 위한 죽 _음의 교전-『티벳 _사자의 서』를 읽고 _(이은봉)</p> <p><b>민중불교관계 _자료집</b></p>
--	---	---

『실천불교』 1집과 2집은 각각 ‘한국불교의 새 방향’, ‘불교를 새롭게’라는 포괄적인 주제의 특집 코너를 마련하여 불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사원 교육의 전통이 한국교육에 미친 영향을 사적으로 고찰한 남도원의 「한국 사원 교육제도」를 비롯해 불교의 어린이관과 교육적 원리를 다루거나(「불교의 유아교육론」), 사찰 운영 및 행정의 근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사찰관리론」),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불교의 선(禪)을 해석하는(「선의 정신의학」) 등 전통적 종교로서의 불교를 동시대적 현실과 지식, 제도와 연결 짓고자 하는 글들을 여럿 실었다. 이 가운데 김상현의 「한국의 미륵신앙」은 “고통과 수탈이 없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회구”로서의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짚어낸 글로, 미륵불의 출현이 “인

간들의 수많은 공덕과 부단한 정진으로 해서 건설”된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앙이자 정진의 신앙임을 밝히고 있다.<sup>40)</sup>

대불련의 ‘한국불교 1600년 대회’에서 발표된 김종찬의 「한국불교의 민중적 전개」는 종교의 사회적 성격과 기능을 민족과 시대라는 틀로 해명한 글이다. 불교가 사회구조의 변동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종래의 무속적 세계관에 편승한 기복 신앙을 주된 가치로 삼게 되었으며, 기존 통치 질서와 권력에 무비판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그것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승가 집단이 불교 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불교가 “지배층에 각색되지 않은 대다수의 고통 아픔”을 대신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으며, 내과 동력을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 통제”에 능한 “대학생 불자”, 곧 청년 불자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글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시각에 입각해 기왕의 불교를 종교적·신앙적 차원으로부터 탈피시키고자 한 시도라 할 것이다. 이는 불교가 탈사회적 종교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적 삶과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해 온 현실적 종교라는 점을 부각한다.

1, 2집에 비해 3, 4집은 구체적인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으며, 르포르타주나 강연문, 대담, 불교계 주요 선언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합한 자료집을 추가하여 지면을 다채롭게 꾸렸다. 3집에서는 ‘한국불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비구니의 역할과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포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근대 불교운동과 승려’에서는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과 불교 유신(維新)에 앞장섰던 한용운과 백용성, 박한영의 삶과 행적을 다루었다. 『실천불교』가 표방한 불교의 민중성 혹은 실천성의 근대적 원류에 대한 탐색은 민중불교운동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발간된 4집에서는 ‘민중·민중운동과 불교’라는 특집을 마련해 민중불교운

40) 김상현, 「한국의 미륵신앙」, 『실천불교』 1, 32-38쪽.

동의 이론적 기반과 역사, 지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였다. 앞머리에 실린 백낙청의 「민주·민족운동과 불교」는 민족운동 영역에서 불교계의 소극성과 천민의식, 중단 지도층의 귀족화 현상 등을 비판하면서도 조선 건국 이래 승려가 팔천(八賤)의 지위로까지 하락했음에도 “일정한 지식과 조직 그리고 조직 생활의 기율”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선구적 민중지식인 집단의 면모”를 지녔다고 본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불교계가 한용운과 같은 민족적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들어 민족운동의 주체로서의 변모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sup>41)</sup> 같은 특집에 실린 목우의 글은 민중불교론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相依相關)는 연기관(緣起觀)에서 출발한다. 불교에서는 여럿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한 개인만이 수용하는 과보를 받게 될 원인이 되는 업(業)을 불공업(不共業)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공동으로 선악의 행위를 하고, 공동으로 고락(苦樂)의 과보를 받게 되는 공동의 행위를 공업(共業)이라 한다. 따라서 잘못된 현실은 공업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만 변혁될 수 있다. 역사와 사회는 바로 공업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억압과 착취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사마세계를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불국정토(佛國淨土)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맹신(盲信)이나 수행이 아닌 공동의 사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교운동의 이념적 지표로서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중략)

요컨대 자리와 이타는 서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둘이 되 하나인 것이다. 원효성사는 이것을 귀일심원(歸一心源)과 이익중생(利益衆生)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본래의 마음자리에 이르는 것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서로 상대연기(相對緣起)의 관계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곧 사회적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깨달음이란 공허한 것이

41) 백낙청, 「민주·민족운동과 불교」, 『실천불교』 4, 20-21쪽.

고, 사회적 실천이 뒤따라야만 깨달음도 완전해진다는 것이다. 참된 자기해방(깨달음)이란 바로 민중 전체의 해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42)</sup>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부의장이자 『실천불교』 4집의 책임편집을 맡았던 목우는 민중불교의 이념적 기반을 설명하면서 개별적 존재자와 공동체의 문제를 내세운다. 이는 공업(共業)과 불공업(不共業)의 구분을 통해 구체화된다. 불교에서 업은 개인적 차원의 불공업과 공동체적 차원의 공업으로 나뉘는데, 상호적 관계망 속에 연결된 개별적 존재들이 함께 만든 역사와 사회는 공업의 산물이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집단적 노력”과 “공동의 사회개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로서의 정토를 구현하는 일 역시 “개인적인 맹신이나 수행”이 아닌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정토 구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우는 “불교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민족통일”을 내세운다. 불교가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담론은 불교가 국가권력이나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권력에 예속된 종교는 필연적으로 지배계층의 헤게모니를 존속시키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는 불교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불교 진리의 역동성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의 민주화나 분단 문제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는데, 군부독재가 지속되는 억압적 사회 현실이나 이념적 대립과 갈등에 의한 분단 현실은 역동성이 소거된 극단적 고착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목우는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 분단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불교의 실천 원리로 ‘중도(中道)’를 내세운다. 중도는 “고행과 쾌락의 두 변(二

42) 목우, 「민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실천불교』 4, 27-28쪽.

邊)을 부정하는 실천윤리”로서, 대승불교의 토대를 마련한 용수(龍樹)는 “팔불중도(八不中道)”라는 개념을 통해 이원론적 인식 방법을 극복하고 “세계의 실상이 연기(緣起)라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았다. 만물이 변화와 유전(流轉)을 거듭하는 까닭에 “어떤 영구불변한 고정된 실체(實體)가 없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다. 목우는 연기에 의한 중도의 원리가 원효에 이르러 “불교적 변증법이라 할 수 있는 화쟁(和靜)의 논리”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화쟁의 변증법적 특성이란 끊임 없는 부정의 과정을 말한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설 새 없는 개입”으로서의 부정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갖는다. 이러한 변증법적 역동성이 바로 불교의 실천성을 고양하는 힘이 될 수 있다.<sup>43)</sup>

민중불교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실천불교』는 ‘시론’ 코너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당대 현실에 관한 불교계 내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들을 전달하고자 했다. 창간호부터 4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37편의 시론을 수록하였으며, 필진 36명이 참여했다.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승가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대학생과 청년층 필자의 수가 절반 이상을 이룬다.<sup>44)</sup> 승려나 사찰 및 포교기관 소속 필자는 9명이며,<sup>45)</sup> 그 외에 교수나 교사, 회사원, 각종 시민단체 활동가, 재소자까지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실천불교』의 시론 코너가 기성 불교계 인사들에 비해 개혁적 입장을 지닌 대학생·청년 불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통로였음을 보여준다. 『실천불교』는 “(이 땅을 정도로 만드는—인용자) 사명을 다하는 데는 연령의 고하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대학생 불자들은 특히 이런 운동의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

43) 위의 글, 29-31쪽.

44) 승가대학 재학생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동국대, 고려대, 전남대(이상 각 2명), 덕성여대, 서강대, 홍익대, 예술전문대(이상 각 1명)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통불회나 사찰 청년회, 대불련 소속 필진들이 참여했다.

45) 최석호(불국사 포교사), 임영담(석왕사 주지), 화선(문빈정사 주지), 이종립(혜림정사 주지), 도법(금산사 총무), 영명(송광사 스님, 신행회 회장), 향적(스님), 진상(부천 반야포교원 원장), 성열(강남포교원 원장) 등이다.

다”<sup>46)</sup>는 선언적 주장을 담은 시론을 가장 앞머리에 배치하여 대학생 불자들의 실천을 독려했다. 또한, 대학생·청년 불자들은 의학과 사범학, “천문·지리·정치·경제·오행·전략·잡학”<sup>47)</sup>과 같은 다양한 방면의 실용적 지식을 적극 수용하고, 교리에 대한 “체계 있는 교육과정과 공부과정”<sup>48)</sup>을 마련하며, 불경의 난해성을 극복할 “보조서적의 출판”<sup>49)</sup>을 가속화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불교가 동시대의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실천불교』는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론 코너를 통해 당대 현실과 긴밀히 교호하는 기동성 높은 매체로서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 4. 민중불교의 문학적 실천과 정토시학

『실천불교』는 당대 발행된 불교매체 가운데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자 했던 매체다. 특히 불교문학이 동시대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현실의 문제들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매체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실천불교』에 수록된 작품 목록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자.

<표 4> 『실천불교』 1~4집 수록 문학작품(시, 소설, 비평) 목록

실천불교 1	실천불교 2	실천불교 3	실천불교 4
시 _ 산화가 외(박희진) _ 사월은 기억에도 외(최광호)	시 _ 연못의 반짝이는 물아래(로브윌슨) _ 님이시여 외(원광)	시 _ 낙화부 외(문병란) _ 텃밭에서 외(문도채)	시 _ 땅의 양심(문익환) _ 승려대회 외(고은) _ 강물을 보며 외

46) 최석호, 「불교인의 시대적 사명과 실행」, 『실천불교』 1, 210쪽.

47) 이진우, 「승려 교육의 필요성」, 『실천불교』 2, 181쪽.

48) 김성룡, 「이 땅에 정토를」, 『실천불교』 2, 192쪽.

49) 경연수, 「한국불교의 실천적 방향」, 『실천불교』 2, 200쪽.

<p>_ 피리소리 외 (이청화) _ 유상서곡 외(원광) _ 어떤 노래 외 (석성일) _ 입산금지 외 (조진우) _ 산천 외(박진관)</p>	<p>_ 도안스님 외 (문병란) _ 첫눈과 진화 외 (강인한) _ 점심시간 외 (김준태) _ 아직도 여기는 밤 의 나라(양성우) _ 무등산 으악새 (장효문)</p>	<p>_ 달맞이꽃으로 말 하기(서벌) _ 거꾸로 걸린 얼굴 외(신세훈) _ 남도의 하늘과 들 과 바람 속에 (송수권) _ 어떤 산 외 (이청화)</p>	<p>(신경립) _ 남대문 용팔이 (양성우) _ 옛 수첩에서 외 (이동순) _ 유치장에서 외 (이청화) _ 우리가 입을 연다 는 것은 외 (김정환)</p>
<p><b>소설</b> _ 양기(이청) _ 일개미의 전설 (김호운) _ 주일 나그네 (오태완)</p>	<p>_ 근황 외(김중) _ 거리엔 꽃들 어지 럽게 흩어지고 외 (허형만) _ 마틴하즈 외 (나중영)</p>	<p>_ 고향산천 42 외 (심상운) _ 계림동 나의 친구 외(박주관) _ 하수 출판 외 (고형렬)</p>	<p>_ 우리가 입을 연다 는 것은 외 (김정환) _ 저 쪽 나무가 푸 르면 이 쪽 나무 도 푸르고 외 (하종오) _ 녹두꽃 외(박진관)</p>
<p><b>비평</b> _ 불교문학의 현대 적 고찰(김운학) _ 불교와 연극 (이강열) _ 문학과 공간 (유한근)</p>	<p>_ 그대 밝고 오는 향기로운 흙 (나해철) _ 지평선 외(곽재구) _ 허깨비의 거리 외 (김희수) _ 분단이라는 병 외 (박선욱) _ 하산일기 외 (박진숙) _ 전라도 외(박진관)</p>	<p>_ 빼앗긴 산천 외 (박진관) _ 종례시간 외 (최승권) _ 역새밭에서 외 (정찬흠) _ 새로운 사회를 위 한 서곡 외 (김하늬) _ 대바람 소리 1 외 (정양주) _ 초파일 외(박성중) _ 오월의 산 외 (김윤세)</p>	<p><b>비평</b> _ 이 세상의 시, 저 세상의 진리 (김우창)</p>
<p><b>소설</b> _ 여행(이광복) _ 주일 나그네(完) (오태완) _ 칠년후(버나드 맬라무드)</p>	<p><b>소설</b> _ 여행(이광복) _ 주일 나그네(完) (오태완) _ 칠년후(버나드 맬라무드)</p>	<p><b>소설</b> _ 꽃바람 꽃샘바람 (김춘복)</p>	
<p><b>비평</b> _ 시인의 보석 (김우창) _ 만해 한용운론 (염무웅) _ 김수영 시의 미적 양식(유한근)</p>	<p><b>비평</b> _ 시인의 보석 (김우창) _ 만해 한용운론 (염무웅) _ 김수영 시의 미적 양식(유한근)</p>		

먼저, 『실천불교』에 수록된 비평은 불교문학의 내적 논리와 특성, 의미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불교』의 문학정신과 지향을 엿볼 수 있다. 김운학<sup>50)</sup>의 「불교문학의 현대적 고찰」(1집)<sup>51)</sup>은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불교문학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그는 불교문학을 선(禪)의 문학과 법(法)의 문학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형이상학적 견지에서 직관적으로 얻게 되는 깨달음을 표현한 시로, “주관적 관념의 표상으로 객관과 그대로 직결되는” 경계로서의 선경의 경지에서 나온 선시를 일컫는다. 반면, 법의 문학은 “불교문학의 사회적·인간적 구원의 목적관”<sup>52)</sup>을 지닌 문학으로, “자비와 보시에 의한 인간의 근본적 구제 이념과 아울러 이러한 사회질서의 덕목을 구체화 또는 현실화”<sup>53)</sup>하는 현실지향적인 참여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두 유형을 우열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으나, 법이라는 관점에서 불교문학의 실천적 사회참여 가능성을 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우창의 「이 세상의 시, 저 세상의 진리」(4집)는 불교문학, 특히 불교시에서 언어와 진리성의 문제를 다룬다. 1973년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서 만해 한용운이 시대와 어떻게 기투했는가를 세밀하게 좇았던 그는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것 또는 초월적인 것과 개체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천불교』 2집에 청록파와 김현승을 다룬 「시인의 보석」을 발표했으며, 3집 권두언 「색시공과 오늘의 밥」을 쓰기도 했다. 그는 ‘불교시 또는 종교시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세상의 시, 저 세상의 진리」에서 시가 종교적 진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유를 개진했다.

50) 김운학(1934-1981)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54년 출가하였다. 1958년 『현대문학』에 평론 「삼매론(三昧論)」이 추천되어 등단하였으며, 『삼매(三昧)의 언어』(불서보급사, 1968), 『신라불교문학연구』(현암사, 1976), 『항가에 나타난 불교사상』(동국대불전간행위원회, 1978) 등 불교문학과 관련한 여러 저서를 남겼다.

51) 김운학, 「불교문학의 현대적 고찰」, 『실천불교』 1, 105쪽.

52) 위의 글, 106쪽.

53) 위의 글, 109쪽.

시에 종교적인 영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숨 쉬는 이 세계의 변증법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진리가 존재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비진리의 과정에 숨어서 존재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언어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느끼는 것은 노출된 진리가 진리이기를 그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시가, 오늘날 흔히 보듯이 물질과 집착의 혼탁 속에 잡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혼탁으로부터 우리 시를 구하는 데 종교적 영감의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종교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공심적멸지(空心寂滅地)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생이 사는 세계에 있어서의 체험의 언어를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그대로 “성스럽고 신적(神聖)인 것의 심상(心象)이고 그림자”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54)</sup>

김우창은 “종교적인 영감의 시”가 “물질과 집착의 혼탁”에 빠진 시를 구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긍정하면서도 종교시, 특히 불교시가 공허한 언어들로 진리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출된 진리는 진리로서의 가치를 쉽게 상실해 버리고 마는 까닭이다. 진리는 늘 비진리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일찍이 그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서 뤼시앵 골드만의 『숨어 있는 신』을 원용하여 “타락한 세상에 신은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상 이외에 신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은 오로지 부정과 부재로서만 확인된다. ‘참으로 신은 숨어 계시는 것이다.’”<sup>55)</sup>라 말한 바 있다. 즉, 진리는 부정과 부재의 원리로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한용운은 진리가 사라진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면서 “‘세간(世間)으로 들어서 세간(世間)에 나는’ 불교”<sup>56)</sup>를 통해 진리에 가닿기를 택한 존재였다. 따라서 시를 통한 진리의 체험은 세간의 언어, 즉 중생이 사는 세계의 체험 언어를 통해 구

54) 김우창, 「이 세상의 시, 저 세상의 진리」, 『실천불교』 4, 223쪽.

55)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2015, 178쪽.

56) 위의 글, 181쪽.

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불교』의 문학정신을 가장 명징하게 반영하고 있는 현대시를 살펴보자. 시는 이 매체에 수록된 글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다. 한용운이 진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진리를 발견했듯이, 『실천불교』의 시인들 또한 진리가 사라지고 도탄과 비애만이 가득한 중생의 세계와 마주함으로써 정토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때 중생은 정토의 도래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실천불교』의 시정신을 범박하게 규정하면 ‘정토시학(淨土詩學)’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실천불교』의 시적 실천과 성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진 구성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간호의 경우 승려시인이나 불교계와 밀접한 시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가장 앞자리에 작품을 실은 박희진은 1955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한 이래 서정적·형식적 미학을 치밀하게 추구하며 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불교적 세계관을 중심에 두는 양상으로 이행하였다. 창간호에 참여한 박진관과 이청화,<sup>57)</sup> 원광<sup>58)</sup>은 이미 1970년대부터 ‘승려시인회’<sup>59)</sup> 동인으로 함께 작품집을 발간한 바

57) 1962년 전북 남원에서 났으며, 1962년 출가했다. 『불교신문』(1977), 『한국일보』(1978년)를 통해 등단한 이후, ‘신서정’, ‘황토시’, ‘씨얼문학회’ 등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였다.

58) 본명은 김용진이며, 194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풀과 별』(1975), 『현대문학』(1978)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76년 부산에서 결성된 ‘목마’ 동인으로 참여했다. 『풍경(風磬)』(배제서관, 1979), 『제자리 걸음』(삼광출판사, 1982) 등의 시집을 펴냈다.

59) 『승려시집』 4, 승려시인회, 1978. 여기에는 김정휴(金正休), 김효경(金曉經), 돈연(頓然), 박진관, 석자명(釋慈明), 석지현(釋智賢), 석성우, 선효(禪曉), 손석일, 우소현(禹素玄), 원광(圓光), 이경안, 이청화(李靑和), 이향봉, 정다운, 현담(玄潭), 황명윤(黃明輪), 황청원(黃淸圓)이 참여하였다. 승려시인회는 1972년 현대시학사에서 『승려시집』 1집(현대시학사)을 발간하였다. 1978년 4집 발간 이후 조계종단 분열이 가시화되면서 동인들 사이의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매체 발간을 이어가지 못했다. 1993년에 이르러서야 5집 『피안으로 가는 수레들』(논장)을 냈다. 「‘승려시집’ 제5권 15년만에 출간, 『한겨레』, 1993.9.26, 9면.

있다. 승려시인회는 1980년 3월부터 시낭송회를 개최하면서<sup>60)</sup> 불교시의 대중화에 진력했는데, 박진관, 이청화, 석성일,<sup>61)</sup> 조진우<sup>62)</sup> 등 『실천불교』의 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sup>63)</sup> 창간호에 이름을 올린 최광호<sup>64)</sup>는 중앙승가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박진관, 조진우와 ‘민중시’ 동인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sup>65)</sup>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실천불교』가 승려시인회에서 분화되어 나간 박진관과 일군의 승려시인들의 창작적 기반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천불교』 창간호가 승려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데 비해, 2집의 작가 및 작품의 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문병란, 양성우, ‘목요시’ 동인 강인한, 김준태, 허형만, 장효문, ‘5월시’ 동인 나종영, 나해철, 곽재구 등 광

- 
- 60) 「승려시인회 16일 첫 시낭송회」, 『경향신문』, 1980.3.14, 5면. 승려시인회(회장 석성우)에서 주최한 첫 낭송회는 1980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다운, 이청화, 황청원, 박진관 등 7명의 승려시인이 자작시를 발표하였다. 낭송회에는 승려시인들만이 아니라 서정주, 박희진, 한영옥, 김상옥, 정공채, 강계순, 성춘복, 임성숙, 신경림 등 명망 있는 작가들을 초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 61) 본명은 이원근이며, 1955년 충남 예산에서 났다. 1979년 『현대시학』에 추천된 후, 198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조부문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사람이 그리운 날』(경학당, 1981), 『산가(山歌)』(오상사, 1984) 등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11인 승려시집’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조오현 외, 오상사, 1984)를 펴내기도 했다. 이 시집에는 조오현, 이병석, 석지현, 김정휴, 원광, 박진관, 이청화, 황청원, 자명, 현담, 석성일이 참여했다.
- 62) 승려시인이자 아동문학 작가로 『어머니, 태어나기 전의 난 누구여요』(대장각, 1983)과 같은 불교동화집을 발간하였다.
- 63) 「승려시인 시낭송의 밤」, 『경향신문』, 1982.10.19, 11면.
- 64) 1940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으며, 『자유문학』(1960)을 통해 등단했다. 『분노의 영토』(강산문화사, 1961), 『너가 없는 내 가슴은』(동양출판사, 1962), 『기상통보』(시문학사, 1978) 등의 시집을 펴냈다.
- 65) ‘민중시’ 동인회는 박진관과 조진우, 최광호, 연극연출가 이강열(‘창고극단’ 대표), 시인 안혜경(항도실업고 교사)으로 구성되었다. 박진관 외, 『민중시』 2, 경서원, 1984. 이강열은 『실천불교』 1, 2집에 「불교와 연극」, 「장승고」라는 논문을 싣기도 했다.

주·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sup>66)</sup> 「편집후기」에서 2집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시인들의 시를 “살아있는 시·움직이는 시·민중과 함께하는 시”<sup>67)</sup>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실천불교』의 문학적 지평이 불교문학으로부터 민중문학 전체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방증한다.<sup>68)</sup> 이러한 흐름은 송수권, 박주관, 고희렬 등이 가세한 3집과 문익환, 고은, 신경림, 이동순, 김정환, 하종오 등이 참여한 4집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천불교』의 정토시학을 가장 선명하게 구체화한 이는 매체를 주재한 박진관이다. 그는 ‘시인-수행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민중시를 구현하고자 했다.

연꽃 얼굴로 가리워 꿈 꾸다가  
곱게곱게 피어난 自由의 나라

마른 나무 움 트는 들판길을  
毒 나비처럼 춤추며 나를 때 마다  
우리들이 원하는 國土에 아침은 오려나  
저 산등선 아래 拿囚의 힘으로 땅은 짓눌려도  
휘영청 밝은 해가 솟아오르면  
이 땅에 줄 無知의 선물을  
수레에 가득신고 오는 奴隸여.

나는 그리움으로 엮드려  
나는 그리움으로 일어나

66) 2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진관은 광주의 문병란을 찾아 그와 김준태의 작품을 신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김준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문병란, 「진관스님의 시세계」, 박진관, 『광주에 오신 부처님』, 일월서각, 1987, 219쪽.

67) 「편집후기」, 『실천불교』 2, 370쪽.

68) 3집의 「편집후기」에서는 『실천불교』가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분야도 깊이 연구할 생각이다. 그래서 불교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후기」, 『실천불교』 3, 398쪽.

반가히 반가히 맞이하여라.

가진 것이라고는 알몸이지만  
알몸에 감금당한 비밀의 구슬이지만  
이 山川에 뿌려 주시길 원할 때  
우리에게 줄 행복을 태양은 끌고 오리라

세상에 사는 고통받는 이들은 하나둘씩  
빛나는 독을 업드려 받으리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나서  
불빛위에 떠 오르는 死身이되어도  
푸른 이 山川은 빛나리

연꽃 얼굴로  
새롭게 새롭게 감싼 山川이여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우리들에게 더 슬픈 곤욕을

- 박진관, 「山川」 전문<sup>69)</sup>

이 작품은 민중의 모습과 민중이 희구하는 세계, 곧 정토의 도래를 노래한다. 민중의 삶은 “마른 나무”와 “독 나비”, 땅을 짓누르는 “나수의 힘”, “노예”와 같은 고통과 억압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우리들이 원하는 국토”인 “자유와 나라”는 “아침”, “휘영청 밝은 해”, “푸른 이 산천” 등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들로 충만하다. 그런데 시인은 “이 땅에 줄 무지의 선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오는 노예”가 바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이끄는 존재라고 말한다. 같은 책에 실린 「不死身」에서 민중은 “쇠사슬에 꿩꿩 묶이여/ 북망산을 오르는 날이 울지라도/ 소리 다물고 울지 않는 역사의 힘으로/ 내일을 절망하며 울지 않”는 “불사신”으로

69) 『실천불교』 1, 266-267쪽.

의미화된다.<sup>70)</sup> 즉, “가진 것이라고는 알몸”뿐이지만 기꺼이 “빛나는 독”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민중이야말로 새로운 산천, 곧 정토를 만드는 불사의 역사적 주체가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선은 고통받는 민중들의 생활에 점점 더 밀착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실천불교』 3집에 실린 작품들에서는 “도시의 빌딩 아래 앉아 있다가/ 시장 입구에 장사꾼들의 눈치”<sup>71)</sup>를 살피야 하는 지게꾼의 애환(「지게꾼의 하루」)이나 어디도 뿌리 내릴 수 없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sup>72)</sup>의 고통(「노동자의 일터」),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속에서 죽음까지 불사해야 하는 현실(「박종만 노동자 만세」, 「청계천」)을 그려내며 더욱 심화된 투쟁의식을 표출하였다.

『실천불교』의 펼친 구성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대다수 작품은 강한 민중지향성을 내포하면서 국가권력의 폭력과 희생, 험벗고 굶주린 민중들의 현실, 사회경제적 모순과 부조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광주·전남 지역 민중시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록한 2집에서부터 여실하게 드러난다. 문병란의 시편은 민중을 위한 불교적 실천과 태도를 시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

① 道安스님은

어디서 사느냐고 물으면  
막대로 환구름 가리키고  
말없이 외나무 다리 건너 고개를 넘는,  
그런 멋진 방랑스님이 아니다.

道安스님은

名山大刹 큰 禪門이 있고  
관광객 들끓으며

70) 『실천불교』 1, 270쪽.

71) 박진관, 「지게꾼의 하루」, 『실천불교』 3, 247쪽.

72) 박진관, 「노동자의 일터」, 『실천불교』 3, 249쪽.

아침 저녁 카세트에서  
가짜 었불 소리 낭랑히 흘러 나오는,  
그런 호화판 절에 사는  
부자 스님이 아니다.

어디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정확하게 대답한다.  
지리산 노고단 임결령 아래 골짜기 십원  
작은 움막 옆 여섯 통의 꿀벌들과 산다.  
(중략)

그는 조계종 태고종  
어느 승적에도 없는  
지금은 제적승,  
수백년생 지리산 사찰림 풍치림  
권력자 었은 악덕었자와 짜고서 남별한  
지리산 인간 송충이들 고발한 죄로  
그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적됐다.

— 문병란, 「道安스님」 가운데서<sup>73)</sup>

②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중략)

초파일 날  
울긁불긁  
무량축수 빌어 올리는 연등  
높은 양반 권좌 오래 누림 빌어주는  
천일 기도  
그득히 쌓인 시주미 속에 계실까

서울의 달동네

---

73) 『실천불교』 2, 251-252쪽.

쫓겨난 목동 주민들의 천막촌  
개다리 상 앞에 쭈그러 앉은  
그 지아비와 지어미  
쫓겨난 전라도 농민의  
빼앗긴 땅 위에  
한 방울 아침 이슬로 계실까  
뜨거운 눈물이 고인  
멀건 콩나물 국물 속에 계실까

이 나라 3천 리 강산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땅  
남의 총이 길을 막는데  
부처님 떠나 버린  
수많은 절간  
금물 칠한 호화판 연좌 비워 두고  
달동네 金氏네 저녁 밥상에 가서  
뜨뜻한 국물로 계시는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난한 사람들의  
빈 밥그릇 속에 한 덩이 밥으로 계시는 부처님!

절간에서 쫓겨나고  
법당에서 쫓겨나고  
오늘은  
지린내 풍기는 빈민가  
신문지로 바람벽을 한 판자집  
루팡 지붕 위에 가서  
한 줄기 바람소리로 소슬히 계시는 부처님!

— 문병란,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가운데서<sup>74)</sup>

인용시 모두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의 실체를 궁극적으로 탐문하는 작

---

74) 『실천불교』 3, 209-211쪽.

품이다. ①은 사리사욕에 눈멀어 사찰의 풍치림을 남벌한 불교계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해 제적당한 도안스님을 다룬 작품이다. 그는 “막대로 흰구름” 가리키며 흑세무민하는 “멋진 방랑스님”도, “가짜 엽불 소리” 울리는 “명산대찰” “호화관 절”에 살지도 않는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엽불은 그 자체로 신앙의 거짓된 실체를 오롯이 드러낸다. 이와 달리,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는 도안스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불교적 신앙과 실천이 오직 현실의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② 역시 “높은 양반 권좌 오래 누림” 비는 탐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비판한다. 부처님은 “그득히 쌓인 시주미”가 아닌 “달동네 김씨네 저녁 밥상”에서 하루 동안의 애환과 설움을 씻어주는 “뜨뜻한 국물”로, “한 덩이 밥”으로 존재한다. 또한 절간과 법당이 아닌 “지린내 풍기는 빈민가/ 신문지로 바람벽을 한 판자집”에 산다. 이는 곧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민중이 부처이며, 그들이 머무는 공간이 정토라는 깨달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편, 『실천불교』에는 문병란의 「트럭 운전사 은철이」, 「어느 소년 亡靈의 노래」, 「광주의 겨울」을 비롯해 5월 광주의 참혹한 희생과 비탄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여럿 실고 있다. 광주는 “멀리서 보면 위대한 도시/ 그러나, 안에 와서 보면/ 보다 더 괴로운 고난의 도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고요히 기도하는 곳”<sup>75)</sup>이며, “멀리 있는 사람들이/ 山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라고”<sup>76)</sup> 부르는 죽음의 고통과 비극이 뿌리 깊이 각인된 공간이다. 그런데 정토시학의 역설적 세계관에 비추어 본다면, 중생의 고통으로 점철된 광주는 정토의 도래를 예증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실천불교』 2집에서는 이러한 광주의 공간성을 장구한 역사적 시각에서 시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장효문의 연작시 「무등산

75) 문병란, 「광주의 겨울」, 『실천불교』 2, 265쪽.

76) 이청화, 「어떤 山」, 『실천불교』 3, 220쪽.

으악새」와 박진관의 「金羅道」 1~11이 그것이다.

① 무등의 황토에 번져 가는 저 무등산 으악새의 흰빛 활촉으로  
반들반들 윤기 흐르는 값진 보석의 화살이 되어 날으는  
굳센 근육으로 단단하게 살면서 억겁의 무등으로 살아야 한다  
무시로 흩뿌려 내려지는 으악새의 흰 씨앗들은 줄 이어 날아  
광양 여천 여수 승주 순천 구례 고흥 보성 화순 담양  
곡성 해남 진도 완도 목포 신안 영광 영암 광산 장성  
금성 광주의 논과 밭에 우리들의 길독 위에 눈 뜨는  
풀잎의 흰 뿌리로 서로서로가 얽히고 얽히어 손과 가슴을  
꼭 부들켜 안고서 몇 무더기 풀덩이는 동구 밖 장승 되어  
(중략)

바람이 불어 온다 바람은 중머릿재로 불어 밀리어 온다  
바람이 장불재의 능선을 밟고 사납게 불어 밀리어 내린다  
너릿재의 구불구불한 계곡의 속살을 헤집고 쏟아져 내린다.  
이때 무등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한 동안 앉아 있더니  
두 팔을 들어 휘저으며 바람과 맞서서 일어나 내 달는다  
아 일제히 일어나는 무수한 무등의 저 흰빛의 칼날을 보라  
무등산 으악새는 바람을 마디마디 자르는 칼이 되어서  
빛살에 눈부시는 칼잎이 되어 무등의 등을 타고 내리는  
바람을 자르면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정지(鄭地)의 냇으로 살어나 왜구를 자르던 칼날로 살어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바른 칼 의로운 쇠칼이 되어 번득이고  
김덕령의 냇으로 일어난 으악새는 무등의 준령을 오르고  
고경명 김천일의 높푸른 기상으로 자라난 으악새는  
무등의 주봉에 올라 서서 땡강땡강 바람살을 잘라 낸다  
늘 나라 위해 왜구를 무찌르던 무등산 으악새의 칼날  
- 장효문, 「무등산 으악새」 가운데서<sup>77)</sup>

② 숨 막히는 산천의 무덤터여

77) 『실천불교』 2, 278-279쪽.

나는 오늘을 이토록 원망해 본 일은 없어라  
백제의 조상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강가를  
피로 물들인 그런 강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잊을 수 없는 산천에 진달래만 피어난다.  
꽃이야 시들면 다시금 피어날 꽃이런만  
어찌자고 이런 서러움으로 피를 뿌리었느냐

— 박진관, 「全羅道」 6 가운데서78)

③ 눈을 뜨고 일어나 외치거라  
산 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백제의 강물아  
너만은 실낱같은 얼굴을 하고 흐르지 말고  
소리 높히어 소리 높히어 힘차게 흐르거라  
아무리 어두운 날의 외침이 온다 하여도  
이 땅에 젖어 흐르는 물줄기를 씻으며 흐르거라.

고통에 짓밟히는 가난한 백성들이  
이다지도 서러워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밝은 내일에 오는 아픔의 꿈을 깨우는 것이어라  
지쳐 죽음의 갈등이 씻기어진다고 하여  
믿을 수만은 없는 하이얀 무덤이 아니겠느냐  
무덤의 돌레에 짓눌리어 있을지라도  
이제는 잊을 건 모두 다 잊고 흐르거라  
흘러갈지라도 거기에 남아 있는 억압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숨소리어라.

이별이 온다 해도 서러워하지 말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하여도 대창 들고 뛰듯이 살아야 한다.  
절대로 굽히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 박진관, 「全羅道」 8 가운데서79)

---

78) 『실천불교』 2, 324쪽.

79) 『실천불교』 2, 326-327쪽.

장효문은 1982년 『서사시 전봉준』을 발표하며 전봉준과 그의 시대를 꿰뚫어 형상화한 시인이다. 그는 무등산을 뒤덮은 억새풀을 통해 무등산에 깃들여 살아간 지역 민중들의 삶과 역사를 장중한 언어와 신명나는 가락으로 형상화한 연작시 「무등산 으악새」를 발표했다. 『실천불교』 2집에는 1부에 해당하는 ‘풀잎으로 박(拍)과 아쟁(牙箏)이를 치며’를 발표하였다.<sup>80)</sup> “반들반들 윤기 흐르는” “흰빛 활촉”과 같은 무등산 으악새는 광양에서 광주에 이르는 전라도 전 지역에 흩뿌려져 민중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생명력의 시원으로서 “어미”라는 무등산의 이미지와 결부된다.

무등산은 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공동체로 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과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는 수호자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이는 “흰빛의 칼날”이라는 은유로 표현된다. 사나운 바람이 증머릿재와 장불재, 너릿재로 불어오면 무등의 으악새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두 팔을 들어 휘저으며 바람과 맞서서 일어나 내닫는다.” 으악새의 흰빛 칼날은 사나운 바람을 자르며 쓰러져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항적 투사의 형상이다. 이때 시인이 호명하는 이들은 고려시대 왜구와 맞서 싸운 정지(鄭地)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덕령, 고경명, 김천일 등 전라도 출신의 투사들이다. “늘 나라를 위해 왜구를 무찌르던” 이들의 정의로운 넋과 기상이 무등산 으악새의 칼날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술은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운 항쟁의 시공간인 광주의 현재적 의미를 뒷받침한다.

②에 따르면 산천은 숨 막히는 무덤터로 화했으며, “백제 조상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강가”는 피로 물들어 버렸다. 서러움 가득한 핏빛 희생의 장면들은 산천 가득 붉게 물들인 진달래 광경과 나란하다. 이때

80) 「무등산 으악새」 2부 ‘回歸하는 바람의 넋’은 『목요시 6-넋의 현실적 생활로 빛나라』(청하, 1986)에 실렸다. 장효문은 이 연작을 다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내 고자 했으나, 완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효문, 「후기」, 『신의 눈물』, 청사, 1985, 207쪽.

시인은 시들면 다시 피는 꽃의 속성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비극적 정조를 부각한다. 「全羅道」 시편들은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를 거듭 제시하며 전라도 지역이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진실과 비극을 형상화한다. 비극적 정서는 “백제의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천상에서 진빛을 값기 위한 일인지 모른다”는 운명적 세계관으로 승화된다.<sup>81)</sup>

③에서는 “산 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백제의 강물”을 그리며 “무덤의 들레에 짓눌리어” 있는 듯한 현실의 고통과 억압, 이별의 서러움을 넘어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창 들고 뛰듯이” “절대로 굽히지 말고 떼떽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의는 불의한 세계에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는 다짐이다. 이처럼 박진관은 11편에 이르는 「全羅道」 시편들에서 백제의 후손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진달래만큼 붉은 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증언하는 한편, “백제의 강물”의 도저한 흐름을 통해 그러한 비극적 시공간을 극복하는 전라도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적인 저항정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처럼 『실천불교』는 진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정토를 발견하려는 희망을 담지한 정토시학의 실천성을 오롯이 구현한 매체다. 이를 통해 불교문학은 현실 속 민중 삶과 부단히 접속하는 실천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5. 나가며

1970~1980년대는 민중의 시대였다. 이 시기 민중들은 군부독재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착취에 맞서 맹렬히 투쟁하며 역사 발전을 추동하는 대항적 주체로 부상했다. 기층민중이 주도한 변혁적 흐름은 정치와 경

81) 박진관, 「全羅道」 3, 『실천불교』 2, 320쪽.

제는 물론 문학과 예술, 교육, 여성, 환경 등의 영역과 밀접하게 접합함으로써 민중운동의 범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다. 민중이라는 기표가 지닌 추동력과 과급력은 대단히 컸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전 사회적 전개 과정에서 종교계 역시 급격한 변화와 쇄신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사회적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던 불교계에서도 사회정치적 모순을 자각한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적·민중적 전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행된 무크 『실천불교』는 불교계의 개혁적 목소리를 선명하게 투영하며 민중불교운동을 견인했다.

이 글에서는 이제껏 무크운동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실천불교』를 중심으로 당대 민중불교운동의 매체 지형과 민중불교론의 논리, 불교문학의 실천성을 두루 검토하고자 했다. 불교계 각 단체의 기관지가 주를 이루던 매체 지형 속에서 무크라는 새로운 출판 형식을 택한 『실천불교』는 논문과 시론, 르포, 대담, 시, 소설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또한, 기성 승가 집단 구성원에서부터 청년 불자,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과 문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수용함으로써 민중불교운동의 다층적 논리와 정동을 교차시키는 기동성 높은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천불교』는 불교의 교리나 역사, 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당대 민중문학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불교문학의 민중적 전환을 꾀하고자 했다. 이는 ‘시인-수행자’의 실천적 존재성을 강조한 박진관과 그 걸사람들의 강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에서 비롯했다. 개혁적 입장을 견지한 불교문인들의 매체 기반으로 기능하던 『실천불교』는 2집 발간을 기점으로 문병란, 김준태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목요시, 5월시 동인들의 작품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필진 구성을 확대하는 한편, 주제 및 내용 측면에서도 민중적 세계관을 전면화하였다. 이는 민중을 정토의 도래를 이끄는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정토

시학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실천불교』의 매체전략을 통해 민중불교운동은 단순한 종교운동의 차원을 넘어 민중문화운동의 역동적 장으로 고양될 수 있었다.

이즈음 1980년대 문학장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투쟁과 변혁의 국면에서 종교와 문학의 접합 양상, 특히 민중불교운동 내에서의 문학적 실천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시인-수행자’라는 실천적 지향점에 기반해 불교적 사유와 문학적 실천이 어떻게 관계 맺어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예증하는 『실천불교』의 문학사적·매체사적 의의는 작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실천불교』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불교를 개혁하고, 중생과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기치를 내건 매체였다. 이때 문학은 불교와 중생, 즉 민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핵심적 방편이었으며, 이를 통해 불교계 내부는 물론 시대 현실이 마주한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불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종교의 본질적 속성과 맞닿아 있다. 문학을 통해 불교의 민중화를 이루고자 했던 박진관을 필두로 한 ‘시인-수행자’의 치열한 삶과 문학적 투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새삼 되묻게 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김원각 외, 『승려시집』 1, 현대시학사, 1972.
- 박진관 외, 『민중시』 2, 경서원, 1984.
- 박진관, 『광주에 오신 부처님』, 일월서각, 1987.
- 장효문, 『신의 눈물』, 청사, 1985.
- 조오현 외, 석성일 엮음,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오상사, 1984.
- 『민족불교』 창간호, 동광출판사, 1989.
- 『민중법당』 창간호, 민중불교운동연합, 1985.
- 『불교문학』 창간호, 불교문학사, 1988.
- 『불교사상』 창간호, 불교사상사, 1983.
- 『승가』 창간호, 중앙승가대학학생회, 1984.2.
- 『승려시집』 4, 승려시인회, 1978.
- 『실천불교』 1, 시인사, 1983.
- 『실천불교』 2, 시인사, 1984.
- 『실천불교』 3, 일월서각, 1985.
- 『실천불교』 4, 일월서각, 1987.
- 『진리의 벗』,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981.
- 『청년여래』 창간호, 여래사불교연구회, 1981.
- 『해인』(합본) 1-24, 해인지편집실, 1984.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신문 매체

## 2. 단행본

- 강인철, 『민중, 저항하는 주체-민중의 개념사, 이론』, 성균관대출판부, 2023.
- 고은, 『문학과 민족』, 한길사, 1986.
- 고은·최원식·김승희, 『고은 문학앨범』, 웅진출판주식회사, 1993.
- 김경집, 『한국 현대불교사』, 운주사, 2025.
- 김광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2015.
- 동국대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메디치, 2018.
-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운주사, 2022.
- 신경림·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3.
- 여익구 엮음, 『불교의 사회사상』, 민족사, 1981.
-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 한중만 엮음, 『한국근대민중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 한길사, 1980.
- 『불교탄압과 불교자주화운동-10·27법난 8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1988.

## 3. 논문

- 김경연,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021, 479-530쪽.
- 김광식, 「불교정화운동과 이승만」, 『정토학연구』 42, 한국정토학회, 2024, 255-296쪽.
-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인문학연구』 45,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31-

## 49쪽.

- 김동식, 「잡지의 시대, 매체의 시대, 문학의 시대-1980년대 문학과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대신하여」, 『한국현대문학회 2014년 제2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8, 230-245쪽.
-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83-104쪽.
- \_\_\_\_\_, 「1980년대 소집단 문학운동과 ‘분단시대」, 『한민족어문학』 108, 한민족어문학회, 2025, 195-235쪽.
- \_\_\_\_\_,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마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0, 한국근대문학회, 2014, 323-356쪽.
- 김보경, 「1980년대 문학장의 재편 과정 연구-생활세계와 읽기 확대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24.
- 김정은,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문화기획과 글쓰기 실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3.
- 명수현·강다연·이순옥,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매체의 이념」, 『역사와 융합』 23, 바른역사학술원, 2024, 371-416쪽.
-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화예술』 16(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43-150쪽.
- 윤창화, 「불서 출판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불교평론』 25(1), 2023, 195-211쪽.
- 이동순, 「1980년대 광주 지역문예운동의 특수성」,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145-170쪽.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이혜령, 「빛나는 성취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쪽.

- 임세진, 「1980년대 지역무크지의 문학문화운동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24.
- \_\_\_\_\_,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9, 323-360쪽.
- 임시현, 「1980년대 광주지역 무크지의 실제」,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2016, 361-385쪽.
- 임헌영,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 105-124쪽.
- 장석주, 「1980년대 소집단 운동에 대하여-1980년대 ‘무크’와 동인지를 중심으로」, 『서정시학』 26(4), 계간 서정시학, 2016.11, 279-287쪽.
- 전서암, 「민중불교론」, 『대화』 1977년 10월호, 크리스찬아카데미, 108-134, 166쪽.
- 한은영,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적 정체성 구성-1980-1994년의 불교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9.
- 홍지혜, 「1980년 여성 노동자 글쓰기가 놓인 자리-무크지 『우리들』, 『함성』, 『햇살』의 투고글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20, 21-60쪽.

<Abstract>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in the 1980s and  
the Logic of *Silcheon Bulgyo*

Myung, Su-Hy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 ideology and strategies of *Silcheon Bulgyo*, a Buddhist Mook publish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in the 1980s.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led primarily by young Buddhists, actively promoted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conservatism and insularity of institutional Buddhism and to restore a sense of practice grounded in social reality. In particular, after the October 27 Buddhist Persecution, state repression against the Buddhist community intensified, and demands fo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Buddhism expanded accordingly, giving rise to a variety of media that articulated reformist voices. Within this context, *Silcheon Bulgyo*, first launched in 1983, attempted forms of practical writing that traversed genres such as scholarly essays, critical commentaries, reportage, dialogues, poetry, and fiction, while also bringing together contributors from diverse fields. Through these efforts, it sought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based on systematic analyses of Buddhist doctrine, history, and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 magazine proposed the practical orientation of the “Poet-Practitioner,” grounded in a strong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

\* Pusan National University.

functioned as a public sphere in which the multilayered logic and affective energies of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intersected. Through these media strategies, the Minjung Buddhist Movement was able to expand beyond the boundaries of a religious movement and develop into a broader current within the Minjung Cultural Movement. In particular, *Silcheon Bulgyo* holds considerable literary-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ursued a popular reorientation of Buddhist Literature through its engagement not only with the works of Buddhist writers led by Park Jin-Gwan, but also with literary collectives such as Mogyo-si(Thursday Poetry) and O-wol-si(May Poetry)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Key Words: *Silcheon Bulgyo*, 1980s, Mook, Mook Movement, Minjung Buddhist Movement, Minjung Cultural Movement, Minjung Literature, Buddhist Literature, Park Jin-Gwan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2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2일